

# 냉전 종결후 미 CIA의 변모

## 1. 「방위산업의 비밀보전」 보고서

미 의회 회계검사원(GAO)은 1996년 2월 21일 「방위산업의비밀보전(保全)」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의 위법 경제정보 수집활동의 실례를 거론하였다.

그 예를 보면 ① 모 일본기업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상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고도(高度)추진기술, 어뢰의 표적용 엔진기술을 미국의 수출규제에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국외로 반출코자 시도하여 수사대상이 되었다, ② 일본기업의 관계자는 비밀로 분류된 고도의 우주개발기술을 연구자로부터 전달받으려고 하다가 수사대상이 되었다, ③ 복수의 일본 일렉트로 닉스기업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을 대상으로 위법한 정보수집을 시도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민간차원 경제정보수집에 가장 열심인 나라라고 지적

동시에 이 보고서는 일본에 대하여 ① 정부 자체로는 외국에서의 스파이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기업은 정부기관 이상으로 빈틈없는 활동을 하고 있어 외국 정부기관의 비밀사항이나 기업의 산업기밀을 상당량 입수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이 기밀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② 일본기업의 멤버는 비밀정보에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미국인에게 접근하고 그 인물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비밀정보의 입수에 성공한 케이스도 적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GAO 보고서는 미 하원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며 그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미국의 군사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제조기술이 누설되고 있고 미 국방성이 외국기업이나 그 자회사, 합작회사 등에 기밀이 수반되는 위탁제조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외국기업이나 관련기업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과 관련기업은 영국·독일·일본 등 12개 국  
현재 방위산업의 기밀과 관련된 생산위탁 가 54개 사에 이르고 있다.  
을 받고 있는 나라 가운데 조사대상 외국기업 보고서에서는 이 12개 국가는 정부나 기업

〈CIA판(版) 인터넷 구상〉

인터넷을 사용하면 방대한 정보에 접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이 찾는 정보는 좀체로 찾기가 어려워 당혹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IA도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의 95% 이상을 공개자료에서 입수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나 공개정보의 양은 현재 5년에 2배 증가라는 속도로 팽창되고 있지만 이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융합·분석·평가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시기를 잃지 않고 필요·충분한 양과 질로 전달할 수 없으면 단지 정보의 망망대해에 빠져 버리고 마는 결과가 된다.

정보 많아도 활용 못하면 정보 없는 것과 같아

1997년 초 이란이 화학무기를 제조·은폐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그 활용이 늦어져 UN에 의한 파기 활동이 개시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는 실태를 연출하였으며 CIA는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 적절한 분석·평가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던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정보는 적어도 곤란하지만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하여도 활용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정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과오 내지는 실패를 반복·재연할 위험성은 일층 높아지고 있다.

정보처리·배분 시스템화 착수

이에 따라 CIA는 정보를 필요한 곳에 시기를 잃지 않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정보처리·배분의 시스템화에 착수하였다.

기본적 구상은 인터넷과 같은 넷트화로서 「CIA LINK」라고 불리우는 CIA 전용 인터넷에 모든 정보를 모아 「넷트에 그 정보가 실려있지 않으면 그 정보는 없다」는 방식이다.

공개/비공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화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인터넷과는 달리 비밀정보를 융합시켜야 종합적인 정보평가가 가능 해지므로 이 공개정보와 비밀정보의 취급상 구별을 넷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CIA는 LINK 계획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정보부와 과학기술부의 요원을 착출하여 계획추진실을 설치하였으며 먼저 「CIA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어떻게 액세스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CIA LINK의 구성양식(構成樣式)이 결정되었다.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상세하게 조사하는 동시에 필요 없는 데이터도 보아야만 하는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자동화방식」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참고가 된 것이 미국 정보기관 사이에 이미 실용화된 Intelink이며 이 Intelink는 다른 정보기관의 컴퓨터에 수록된 정보도 원격지에서 단말기를 조작, 액세스하여 정보를 꺼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보안문제는 CIRAS 개발로 해결

그러나 Intelink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정보보안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개발된 것이 「국내정보검색기억」(局內情報檢索記憶 : Corporate Information Retrieval and Storage ; CIRAS)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시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하여 종래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던 정보전달·이동루트를 통합화한 것이며 당시까지 사용하던 보안해석파일환경(Secure Analysis File Environment ; SAFE)시스템 대신에 도입하였다.

CIRAS가 SAFE에 비하여 우수한 점은 ①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② 정보검색수단으로서 엑스케리버사(社)가 개발한 Retrieval Ware라는 소프트웨어(엔진)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문맥관계에 의한 검색이나 반복검색이 용이해졌다.

### DATA MINING 도 구상중

이상적인 것은 검색 - 인터넷처럼 - 만으로 복수의 데이터 베이스에 액세스하여 정보를 끌어내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 낼 수 있는 체제이다.

이 체제는 보다 고도의 검색엔진이 필요하며 현재는 아직 그와 같은 엔진은 완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데이터 채굴(DATA MINING)과 문맥(文脈)으로부터 수색(搜索)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의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판단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만을 집어내는 것이고 나아가 유사어, 비슷한 의미, 단어의 대비, 문장 중에서 설명되고 있는 행위나 사건 등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정보를 끄집어 낼 수 있는 검색엔진의 개발도 추진중이다.

### INFORMATION EXTRACTION도 개발할 예정

이것과는 별도로 정보발취(INFORMATION EXTRACTION)라 불리는 기능을 지닌 검색엔진의 개발도 계획되고 있다.

이 기능은 어떤 작업과정에서 일련의 이름이나 장소, 행위 등의 검색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다른 데이터 베이스에 기억시키는 것을 반복할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위 정보처리·해석의 자동화이다.

방대한 정보의 바다(海)에서 유효 적절하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색 기능의 고성능화와 자동처리가 불가결하다.

### 검색기능의 고성능화·자동처리가 불가결함을 인식

CIA는 이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기관의 하나라고 지목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공개정보와 비밀정보 취급의 구분·융합화·그 결과의 비밀도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CIA LINK를 인터넷에 한정시켜 보다 넓은 정보의 수집·융합·분석 기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으나 CIA의 정보처리개혁은 향후 기술개발과 더불어 그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정보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미국에 대하여 경제스파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생산위탁에 대하여도 스파이활동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2. 미 정보활동의 전환

미국은 냉전종결후 경제정보의 수집과 경

제스파이 대책으로 정보활동의 중점을 이동시켰다.

실제로 부시정권 당시부터의 역대 CIA부장의 발언을 보면 이미 경제정보의 수집을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방향전환을 선명히 하고 있다.

### <CIA부장의 발언록>

◦금후 비공산권 재국가에 의한 경제적 위협에의 대응을 중시하여야 하며 산업스파이 저지활동을 FBI와 협력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산업스파이대책으로서는 외국기업의 미국에서의 위법한 정보수집활동의 감시와 외국정보기관의 스파이기술 습득의 방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1991년 9월 17일 게이트부장).

◦미국 정부의 20개 정책결정기관과 성·청(省·廳)에 대한 정보수요조사의 결과 40%가 경제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1992년 4월 13일 게이트부장).

◦구 공산주의국가 외에 아시아·유럽·중동·중남미의 20개 국가가 경제스파이활동을 하여 미국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것도 정보기관의 요원만이 아니라 경제부처나 정부의 무역관련기관의 요원들이다(1992년 5월 29일 게이트부장).

이와 같은 미국의 정보활동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듯이 엘친 러시아 대통령도 1997년 2월 7일 크렘린에서 열린 안전보장회의 석상에서 서구국가와의 첨단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국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유효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제정보중시의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인 정보기관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경제정보중시의 시대적 흐름을 수용

1992년 2월 CIA를 싱크탱크화하면서 냉전종결후 역할이 감소된 비밀공작부분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이 산하 양원 합동으로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CIA를 스파이조직만으로서가 아니라 싱크탱크기능까지 지니게 하여 정보분석능력을 강화시키고 이에 따라 얻은 정보를 미국의 외교·안전보장·경제등에 전략면에서 활용하여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다 높이려는

의도에 다름이 아니다.

### 3. CIA의 싱크탱크화

CIA는 정보기관인 동시에 정보커뮤니티 - DIA, NSA, 육·해·공·해병대의 정보부등 미국의 12개 정보기관으로 구성되는 정보협의체 - 의 조정역·감독역의 입장에 있고 CIA 부장은 정보커뮤니티의 의장을 맡고 있다.

CIA의 싱크탱크화법안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정보커뮤니티의 정보활동을 운용면·재정면에서 일원화함과 동시에 정보분석부문을 CIA로부터 분리시켜 싱크탱크로 활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분할후의 CIA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장관을 신설하여 그 밑에 2명의 부장관을 두며 종래의 CIA기능은 정보커뮤니티 전체를 총괄하는 정보수집담당 부장관의 지휘하에 두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위한 비밀정보의 수집과 소규모 분석만을 수행하며 싱크탱크기능은 정보분석담당 부장관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싱크탱크의 메리트는 민간에의 정보제공

싱크탱크화의 최대 장점은 이제까지 비밀로 취급하여 사장되었었던 공개 가능한 정보를 민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종래 CIA의 더러운 이미지(Dirty

Image) 때문에 대학 등이 기피하던 공동연구도 가능하게 되고 정보수집과 공작부문을 분리시킴으로서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의 영입과 공동연구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메리트로 거론되고 있다.

CIA는 정보·작전·과학기술·행정보부로 나뉘어져 있고 싱크탱크기능을 구비한 부서는 정보본부이다.

정보본부는 정보담당 부부장하에 구 소련 분석부, 중근동·남아시아 분석부, 동아시아 분석부, 아프리카·중남미 분석부, CIA부장 직속 마약대책센터, 과학·무기연구부, 자원·통상·기술부, 영상 분석부, 분석지원부, 리더십 분석부, 정보자원부의 12개 섹션이 뇌세포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매일 아침 「대통령 일보」와 「붉은 책」 작성·보고

이 정보 본부에서는 매일 아침 「대통령 일보」(Presidency Daily Brief)와 「붉은 책」(Red Book)이라는 2종의 기밀정보를 보고한다.

대통령 일보는 대통령과 보좌관에게만 한정적으로 배포되며 HUMINT(스파이 활동), 통신감청, 위성정찰, 정찰기 정찰정보 등 All Source Intelligence라 불리는 모든 정보원(源)으로부터의 최고기밀이 압축되어 있다.

한편 붉은 책은 주요 각료나 스텝에게도 배포되며 대통령 일보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

지는 정보라든가 참고자료를 대통령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로 제작하여 보고한다.

CIA를 싱크탱크로 개조하여 국가적 두뇌로 활용

정보분석능력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사고가 숨겨져 있다.

CIA의 능력을 국가적 두뇌로 활성화시킴으로서 군사적 보강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코스트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싱크탱크의 영지(英知)를 결집시켜 국가전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야말로 포스트 냉전시대 미국의 대전략 Super Grand Strategy이다.

4. 동맹국도 도청

일본 아오모리현(靑森縣 三澤)에 위치한 미군기지에는 미 NSA의 도청시설이 있다.

이 초대형 안테나는 직경 440m, 높이 36m의 원형으로 1965년이래 극동지역 소련군의 군사통신을 도청해 왔으며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의 NSA본부에 보내져 해석되고 있다.

NSA는 전 세계 약 200개소에 전파도청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아오모리현의 미국기지에서 1970년대부터 일본의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의 통신도 도청·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고 보아서는 큰 오산이라 할 것이다.

5. 철저한 보안이 국가기밀 보호

정보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인·기업인·공무원 중에서 가장 입이 무거운 것은 기업인이며 정치인과 공무원은 개인차가 크고 공무원 중에는 통상·재무관리쪽이 입이 가볍고 외무·경찰쪽은 비밀보호에 대한 교육훈련이 철저하여 입이 무겁다고 한다.

당연히 CIA를 비롯하여 세계의 정보기관은 말하기 좋아하거나 입이 험폰 정치인·기업인·공무원의 리스트를 만들어 접근하고 비밀을 얻어낸다.

정보요원들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정보수집은 50% 완료」라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고 있다. 허튼 말이라도 한 마디 한 마디에 국가

<경제관리의 비밀누설 유형>

- ① 무슨 일이건 자만하는 태입 - 조금만 칭찬해주면 통상·외교교섭에서 자기의 역할을 떠버린다.
- ② 자극에 약한 태입 - 신경을 건드리거나 도전적인 말을 들으면 자기주장이 맞다고 역설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입에 담고 만다.
- ③ 이성·술에 약한 태입 - 섹스공략에 넘어가거나 술이 거나해지면 할 말 안할 말 다하고 만다.

의 기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첨단 정보 수집 기술이라 장비가 없더라도 사람의 혀픈 입이 정보를 주는 것이다.

위험(RISK)은 사람에게 있다. 이 위기관리의 철칙은 비밀보호에도 통용되는 철칙이다.